

“교원·공무원 정치권 기본권 보장”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60)

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게 교육이념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먼저 민주주의의 온전한 전당과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현실은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개혁과 민주주의 교육을 가능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를 추진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투표하겠다.

“사회적 약자 권리 증진”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64)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투표한다. 나는 경찰관으로 공무원 수행 중, 사고로 장애인이 된 중도 장애인이다. 지금은 투표소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대한민국은 등록장애인들이 25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중도장애인은 89%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모두를 예비 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준비하고 실천할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기후환경 공약 실현돼야”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국장·52)

기후정치바람,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16개 기후환경단체가 총선 후보들의 기후환경대응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국민의힘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녹색정의당은 17명 출마자 모두 기후공약 제시, 새로운미래는 28명 중 4명, 개혁신당은 43명 중 1명 순이다. 매년 선거철마다 내놓는 평준화된 공약보다 즉각 실현이 가능한 기후환경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에 한 표를 던질 생각이다.

“민주적인 학교 만들어야”



박삼원 (정광중 교사·광주교사노조 위원장·55)

중학교 교사다. ‘학교는 작은 사회, 사회는 큰 학교’라고 말한다. 학교도 사회라서 운영 원리가 있다. 그 운영 원리는 일반 사회의 모습과 완전히 닮아 있다. 나라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핑개쳐 폭력적이면 학교도 금방 폭력사회가 된다. 작은 사회인 학교를 평화롭게 만드려면 큰 학교인 사회를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표하겠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김형국 (오병장애인차별철폐센터 사회복지사·47)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한다.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투표소에서의 차별도 여전하다. 휠체어로 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투표소와 부족한 안내로 장애인들은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투표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을”



노흥기 (한국새농민 광주시회 회장·65)

청년 유입이 없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 인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이를 통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

“집 걱정 없는 안정된 사회를”



김덕진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대의원·61)

우리 젊은이들이 집 걱정 없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표한다. 최근까지 이어진 고금리로 집이라는 가장 작은 형태의 기반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국가는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 육아와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 가꿔나가야”



오현석 (목포시새마을협의회회장·59)

이번 총선에서 지역상생을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한다. 새마을회의 이념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윤택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권 대립이나 여·야간 소통의 부재가 아닌 복지과 인권 등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가꿔나갈 수 있게 한 표를 행사하려 한다.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길”



김현기 (광주에스플라스기공소 치기공사·25)

3년차 치기공사다. 직장과 업무에 적응을 마치고 이제 제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이 자립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결혼적령기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갬러루족’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청년이 행복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구성돼야 그 국가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펼쳐줄 것이라 기대하며 투표하겠다.

“마을형 공동주택 문화 만들어 주길”



박내영 (공동주택관리소장·63)

일생을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살았다.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은 폐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웃 간 소통은 단절된 지 오래다. 이웃끼리 소통하는 마을형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마을형 문화가 공동주택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를 대신할 국회의원을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 중요”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58)

청년 주거 정책을 위해 투표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 청년들에게 ‘집’은 희망이 아니라 ‘근심’이자 ‘경제적 부담’이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하지 않은 이유 역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청년들에게 ‘반듯한’ 주택을 공급하고 올바른 주거문화를 만드는 것만이 대한민국 출산율 저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보겠다.

“불평등한 제도 개선됐으면”



여의주 (전문건설업·26)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불평등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겪게 됐다. ‘종합·전문 건설 간 상호진출 허용’과 같이 종사자 80%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하는 제도가 그 예다. 전문·종합 건설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해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닌 직접 시공 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투표한다.

“올바른 생각·가치관 반영해야”



오창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24)

이번 총선에서 저는 조금 더 나은 생각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표를 한다.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는지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나의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곳곳이 꺾이지 않고 노력하는 정치인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실속있고 실용적인 청년정책 필요”



박준범 (사회복지사·30)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달라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나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투표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관련한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N잡러가 증가하는 이유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진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실속 있고 실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예술인 창작활동 환경 개선을”



이당금 (예술이백그라운드 대표·55)

예술가답게 살기 위해 투표한다. 2022년 대선 공약인 상식과 공정은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휘청거렸던 청년세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열광했다. 하지만 기울어진 상식과 공정은 문화예술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역 예술인의 복지정책과 지원 사업등의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라지게 했다. 지역 예술인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익과 인권 보호와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한 세상을”



이승민 (직장인·33)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며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또한 번 속는 셈치고 기대를 해본다. 당장 결혼만 생각하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 자녀를 낳아도 따라오는 걱정이 많은데, 그런 세상이 아닌 그저 지극히 평범한 미래를 꿈꿔본다. 아동바등하며 금전적으로 허덕이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바라본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투표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이영혜 (주부·54)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표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정쟁 대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정치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의 힘을 행사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투표는 정부에 대한 심판”



정현영 (직장인·36)

투표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투표 결과는 현재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지역의 대표자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도 각 정당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와 미래를 위해 각각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한 평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더 나은 사회와 미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 갖고 행동”



김재중 (공무원·36)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투표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는 한편,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나의 투표로 인해 세상이 달라진다면, 그것 또한 내가 감당하거나 누려야 할 일이다. 투표용지 한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온전히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투표를 하는 이유다.

“내 목소리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박지훈 (자영업·35)

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인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투표한다. 투표는 내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모든 이가 사용하지는 않는다.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